

# 장흥에 전국 첫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들어섰다

### 전남도, 산림청 공모사업 유치 버려진 벌목 부산물 자원화 톱밥·우드칩·퇴비 생산 시스템



전남도가 산림청 공모사업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사진〉를 장흥에 유치해 전국 최초로 조성, 3~4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신재생 에너지원료, 축사 깔개, 친환경 퇴비 등으로의 자원화가 손쉬워졌다. 장흥군산림조합이 운영하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장시설, 보관창고 등 기반시설과 이동식 파쇄기, 운반 차량 등의 기계장비를 갖춰 양질의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하는 수집·가공·유통시스템이다.

벌채 후 산에 남겨지는 수목 부산물은 전체 벌채량의 약 44%나 된다. 조립사업 등 산림경영에 지장을 주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성을 높

일 뿐 아니라 산림 경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에너지원료로서 목

재펠릿과 목재칩 사용량이 늘고, 특히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차등 부여하는 공급인증서 가중치(REC) 2.0을 받으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톱밥 가공에 필요한 원목을 전남지역 원목생산업자를 통해 구입하고, 벌채·숲 가꾸기·가로수 가지치기 등 산림작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인근 지자체를 통해 수집해 연간 톱밥 2만 톤과 우드칩 5만여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산 지역 목재로 생산한 톱밥은 장흥을 비롯한 전남지역 한우농가와 승마장 등에 축사 깔개용으로 수입산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우드칩은 공원이나 화단 깔개용, 과수·원예농가 멀칭용, 목재펠릿, 발전소 연료용, 친환경 퇴비 생산용으로 판매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속에 방치된 목재 부산물을 축사 깔개용, 에너지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농·축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해지고, 환경이나 에너지자원 확보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며 "전국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 산림조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와 발전소 등 대규모 수요처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여성농어업인 9만5000명 연간 20만원 행복바우처

전남도가 농어업인의 52.4%를 차지하는 여성의 문화·복지 생활을 뒷받침할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남도 민선 7기 전남지사 공약사업이다. 농촌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8억원을 늘어난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 인원은 4000명 늘어난 9만 5000여명이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이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카드 발급 희망 농협에 방문해 신분 확인을 거쳐 자부담금 2만원을 내면 현장에서 2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바우처 카드는 여성의 문화·복지 생활과 관련이 있는 영화관, 서점, 식당, 마트,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총포류판매점, 귀금속점, 골프장, 카지노, 게임방,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접수 기간 신청하지 못한 여성농어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6월 초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행복바우처 사업의 현장 호응이 높다"며 "카드 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축산농 사료 구매자금 전남도 254억 저리 융자

전남도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차로 사료 구매자금 25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융자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양 등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법인이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4월 말까지 해당 사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 6억원, 양돈·양계·오리농가 9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이다. 농가당 산출금액은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배합사료 가격이 추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 2차 배합사료 구매자금 약 200억원을 오는 7월께 수요조사 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508억원을 지원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약 10% 올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합사료 구매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사·군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기원·해남군·팜에이트 스마트팜 조성 다자간 업무협약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9일 해남군청에서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명현관 해남군수, 강대현 팜에이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스마트팜 개발 기술과 관련 시설·설비 ▲HMR(가정식 간편식품) 생산공정 등 연구개발 기반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팜 치유농업 활용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HMR 제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스마트팜이 미래 지향적인 첨단 기술의 한계를 넘어 치유농업적 활용 및 HMR제품 개발과 농산물 유통 기반 소득 연계 스마트팜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전남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오른쪽부터)과 명현관 해남군수, 팜에이트 강대현 대표가 지난 9일 스마트팜 관련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 전국 370개 지방공기업 평가

전남개발공사가 '2020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전국 370개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4.19점 상승한 89.80점을 얻어 전국 370개 지방공기업의 평균(80.68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지방 도시개발공사군의 평균(85.92점)보다도 4점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산하기관(상수도 8개, 하수도 8개, 공단 1개) 중에서도 최고점수다. 서비스 과정(90.24점), 서비스 결과(90.89점), 사회적 만족(90.86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개발공사는 그동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리더 선정과 22개 사·군 46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위원회를 발족하고, 소통과 고객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고객 만족

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고객에게 큰 신뢰와 만족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철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생각은 많고 사랑을 담은 열린 공기업이라는 고객만족 목표 아래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좋은 점수를 받게 돼 기쁘다"며 "전남 행복시대를 선도하는 도민행복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 의견 수렴 채널을 다각화 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선정 순천시 국고 13억원 확보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순천시가 최종 선정됐다.

민선7기 전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푸드플랜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뿐만 아니라 소비, 식생활, 영양, 폐기 등 먹거리 관련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이 같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농산물의 지역 내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확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및 직매장 지역·가공품 판매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급식지원센터와 같은 공급기반 시설부터 농가 교육, 안전성 검사, 직매장 홍보에 이르기까지 푸드플랜 실행에 필요한 사업 전반을 지원받는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중소농 소득안정,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서 2019년 나주시(74억원)와 해남군(46억원), 2020년 장성군(49억원)이 선정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홈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